'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남자친구'

'SKY 캐슬'

안방극장 연말 맞아 간만에 '호황'

소문난 잔치 풍성한 화제 … '알함브라' '남자친구'
학부모들 폭발적인 반응 인기몰이 … 'SKY 캐슬'

한동안 안방극장 침체기인가 싶었지만 연말 파티는 역시 시끌벅적해야 제맛이다.

송혜교-박보검의 로맨스로 기대를 모은 '남자친구'와 현빈-박신혜의 증강현실 로맨스로 화제가 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 tvN 작품들은 소문 난 잔치답게 시작부터 손님이 대거 몰렸다.

시작은 잔잔했지만 방송 직후부터 폭발적 반응을 얻은 JTBC 'SKY 캐슬'도 연말 파티에 가세, 메뉴가 더 풍성해졌다. 이제 지상파 합류만 남았다.

◇ '더블유' 때 충격, 증강현실 만나 폭발 …'알함브라'

진범에게 얼굴을 빼앗긴 오성무(김의성 분)가 얼굴 없이 돌아다니며 "수봉이"를 외치는 모습은 안방극장에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2년 전, 웹툰 속 세계와 현실을 오간 MBC TV 드라마 'W'(더블유)로 시청자에게 신선한 놀라움을 안긴 송재정 작가가 이번에는 게임 속 세계와 현실을 접목한 tvN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돌아왔다.

유진우(현빈)는 인이어 장치와 렌즈, 두 가지 장비만으로 스페인 그라나다를 휘젓고 다니는 '전사'가 된다.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천장에서 검이 내려오고, 광장에서 그 검으로 적과 싸운다. 남들이 보기에는 혼자 허공에 대고 허우적거리는 것 같지만 진우의 시야 안에서는 차가 부서지고 피가 튄다.

적에게 패해 죽을 때마다 다시 검을 가지러 식당 화장실로 들어가는 진우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정말 저런 게임이 있다면 그라나다가 알함브라의 도시에서 마법의 도시로 이름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작진은 허무맹랑한 이 게임을 드라마 화면으로 옮겨오면서 컴퓨터그래픽 기술을 활용해 제법 리얼리티를 살렸다. 분수대 광장에서 적이 칼로 땅을 가르는 장면이나 자동차가 부서지는 모습은 신선한 볼거리였다.

◇ 예쁜 애 옆에 잘생긴 애…진부해도 설레는 '남자친구'

송혜교와 박보검이 예쁘고 잘생긴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11살이라는 나이 차와 현실 속 사적으로 얽힌 관계가 약간의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tvN 드라마 '남자친구'는 베일을 벗자마자 이러한 우려는 기우였음을 증명했다. 젊은 여성 시청자의 눈을 제대로 사로잡으며 시청률은 2회 만에 10%를 돌파했다.

'남자친구'는 기존 로맨스극 속 남녀 캐릭터를 전복한다. 사실 그것만 제외하고 본다면 재벌 남자와 캔디형 여자의 장애물 많은 사랑 이야기, 그 이상은 없다. 그래서 일부 시청자는 극 흐름 자체가 진부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오랜만에 안방극장에 찾아온 정통 멜로극이자, 그 주인공이 오랜만에 복귀한 송혜교와 박보검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남자친구'를 선택했다.

송혜교는 차갑고 무미건조한 여자 수현(송혜교)이 자유로운 영혼의 청년 진혁(박보검)을 만나면서 웃음을 되찾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박보검은 로코 여주인공처럼 통통 튀는 매력을 발산하면서도 나이 차가 꽤 나는 송혜교와 너무 동떨어지게 보이지 않는 안정감도 유지한다.

전개 역시 최근 드라마 트렌드에 맞춰 빠른 편이다. 작품은 첫회에서 쿠바에서의 운명적인 인연을 그려낸 뒤 바로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동화호텔로 배경을 옮겼다. 2회에서는 두 사람 인연이 깊어지는 것을 그리자마자 마지막에 두 사람 간 스캔들이 터지는 장면을 담으면서 긴장감을 높였다.

◇ 코미디보다 웃긴 블랙코미디의 정수 …'SKY 캐슬'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과 '남자친구'야 워낙 기대한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SKY 캐슬'은 시작하는지도 모르게 시작했다가 입소문을 타고 시청률이 치솟은 경우다. 이 작품 1회 시청률은 1%대였지만 2회에 곧바로 4%대로 올라섰고 4회에는 7.5%까지 찍었다.

자녀의 대학 입시를 놓고 대한민국 최상류층이 벌이는 치열한 입시전쟁을 담은 이 작품은 학부모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과 동시에 내 자녀의 입시도 걱정하게 만든다는 시청평이 주류를 이룬다. 그만큼 과장된 블랙코미디임에도 배경과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그려냈으며, 몰입감도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작품 흥행 배경은 역시 짜임새 있는 구성과 하나하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캐릭터들 덕분이다.

이명주(김정난)의 죽음과 아들 영재(송건희) 가출 사건, 과거부터 이어진 한서진(염정아)과 이수임(이태란)의 악연, 서진과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김서형)의 기싸움 등은 입시를 소재로 한 이 드라마에 장르극 뺨치는 긴장감을 더했다.

왕궁 속 유일하게 '정상인'인 수임 부부와 그의 아들 캐릭터는 다소 '전형적'이라는 느낌도 있지만 배우들의 농익은 연기 덕분에 진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연합뉴스

국악방송 '송년음악회 얼씨구 좋다' 공개방송

내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전당

이봉근

강정렬

방수미

강길원

국악방송 토·일 프로그램 '온고을 상사디야'가 오는 6일 오후 7시 30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송년음악회 얼씨구, 좋다' 공개방송을 연다.

판소리 명창 방수미와 소리꾼 강길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방송에는 우리 전통음악 명인들이 출연해 2시간 동안 무대를 꾸민다.

먼저 호남좌도농악의 대표주자 양진성과 임실필봉농악보존회의 '비나리 축원덕담'으로 무대의 문을 열고 정읍농악 이수자 김소라(전북도 무형문화재 7-2호)의 장구연주가 이어진다. 모던 월드뮤직 듀오 '벗'의 김소라가 타악 연주를 선보이고 가야금 명인 강정렬(국가 무형문화재 23호)가 '신관용류 가야금산조'를 무대에 올린다.

또 해금명인 이동훈, 거문고 이재하, 대금 이동준 등 선후배 연주가들이 모여 민속악의 정수를 보여주는 무대도 마련된다. 젊은 소리꾼 김대일은 앙상블 마더네이처와 '나를 찾아서'와 '적벽화전'을 협연하며 젊은 감성의 판소리를 선보인다. KBS '불후의 명곡'에서 우승을 거둔 소리꾼 이봉근과 밴드 '두 번째 달'은 '춘향가' 중 '사랑가', '이별가' 등으로 호흡을 맞춘다.

사회자인 방수미 명창은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소리꾼 강길원은 창작판소리 '광대가'와 '전주8경가'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공개방송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 FM 99.3㎒·전주 95.3㎒ 등을 통해 전국 방송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버닝' '밤의 해변…' 올해의 영화 톱10

프랑스 유명 영화지 선정

이창동 감독의 '버닝'과 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가 프랑스 대표 영화전문지 '카이에 뒤 시네마'가 선정한 '올해의 영화 톱 10'에 선정됐다. 한국배우 유태오가 주연을 맡은 러시아 키릴 세레브렌니코프 감독의 신작 '레토'도 포함됐다.

이 잡지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올해의 영화 톱 10'에는 '버닝' '밤의 해변에서 혼자', '레토' 이외에 '더 와일드 보이즈'(베르트랑 만디코), '쿠엥쿠엥 앤드 더 엑스트라 휴먼즈'(브루노 뒤몽) 등이 포함됐다.

'팬텀 스레드'(폴 토마스 앤더슨), '폴 산체스 이즈 백'(패트리샤 마주이), '더 포스트'(스티븐 스필버그), '살인마 집의 잭'(라스 폰 트리에), '트레져 아일랜드'(기욤 브라크)도 이름을 올렸다.

카이에 뒤 시네마는 프랑스의 저명한 영화 평론가 앙드레 바쟁이 1947년 창간한 영화전문지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찬란한 밥상 스페셜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붉은 달 푸른 해(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죽어도 좋아(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붉은 달 푸른 해(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2018 삼성화재 월드바둑 마스터스 결승 3국 〈안국현 8단:커제 9단〉	00 잠시만 빌리지(재)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에어로버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접속! 무비월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페이스 벅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35 미니다Q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죽어도 좋아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2부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서바이벌 어드벤처 3부 남중국해 무인도〉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랄랄라 뿌우
09:00 엄마 까투리
09:30 원더볼즈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소고기 약고추장과 연근 부추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초대석
13:00 지식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EBS 특별기획 〈시대와의 대화〉
14:30 코코몽3
15:00 마샤와 곰 스페셜
15:15 출동! 파자마 삼총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랄랄라 뿌우(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메디컬 다큐 - 7요일
20:40 세계테마기행 〈컬러풀 아프리카 3부 아웃 오브 아프리카 모로코〉
21:30 한국기행 〈통영바다가 맛있는 이유 3부 푸른 바다의 전설 욕지도 〉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5일 (음 10월 28일 辛未)

子 36년생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48년생 정해진 일이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60년생 이루어지기는 하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72년생 시작은 힘들지라도 나중에는 희열로 가득 차리라. 84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운로이다. 행운의 숫자 : 57, 33

丑 37년생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 49년생 시기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이다. 61년생 중요한 것을 다루게 될 것이니 실수가 없어야겠다. 73년생 길사로 연결되는 행운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다. 85년생 흐리터분한 데가 없이 셈이 밝고 명확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6, 16

寅 38년생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50년생 심지를 굳게 하고 있었다면 학수고대하던 소원이 필히 이루어 질 수도 있다. 62년생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회생하여 기쁘겠다. 74년생 변화의 폭이 크다. 86년생 시작이 올바르면 성과가 알차다. 행운의 숫자 : 11, 69

卯 39년생 재고할 필요가 있느니라. 51년생 표준이 될 만한 전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느니라. 75년생 절제 했을 때 진정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87년생 포용력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도다. 행운의 숫자 : 24, 58

辰 40년생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느니라. 52년생 진행하는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는 양태이다. 64년생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76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입장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자. 88년생 안정세를 굳히게 되지만 노고는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36

巳 41년생 여과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갈 수 있다. 53년생 구태의연한 과정은 해소하는 것이 맞다. 65년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77년생 숨은 뜻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 89년생 가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멀다. 행운의 숫자 : 62, 79

午 42년생 청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54년생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문제점이 해결 될 것이다. 66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백 번 못하다. 78년생 내심에서 내키지 않으면 수용할 필요가 없느니라. 90년생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행운의 숫자 : 63, 40

未 43년생 소모적인 국면은 피해야 한다. 55년생 기분에 좌우 된다면 많은 것을 놓칠 수도 있다. 67년생 뜻밖의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 두루 살펴보자. 79년생 현상의 이면까지 살펴보아야만 한다. 91년생 주변인들로부터 인정받거나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8, 99

申 44년생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효과를 보게 된다. 68년생 구체화 되면서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80년생 낌새가 보였을 때 즉각 대처하는 것이 낫다. 92년생 핵심 가치를 간과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6, 70

酉 45년생 관계와 입장까지 감안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57년생 물처럼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자. 69년생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81년생 주변과의 조화를 중시하자. 93년생 대상의 선정에 따라서 천차만별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53, 65

戌 34년생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니 계획대로 진행하라. 46년생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이루어진다. 58년생 선의를 악용하려는 이가 보인다. 70년생 성과물이 생길 수도 있으나 여과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움을 면치 못한다. 82년생 기대하지 않음이 옳다. 행운의 숫자 : 56, 91

亥 35년생 과감한 용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47년생 의지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보인다. 59년생 보류될 수도 있다. 71년생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가 따로 있다. 83년생 잠깐의 요동이 있을 수나 곧 안정될 것이니 염려 말라. 행운의 숫자 : 88, 8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